

196, 70년대 잡지 『여학생』 특집 연구

—감정의 재배치와 국민만들기

이선옥

숙명여자대학교 기초교양대학 조교수

목차

- 1 머리말
- 2 과학소설 없는 생활의 과학화 잡지
- 3 독서교양과 청소년 과학교육
- 4 감상적 소녀의 재구성—명랑성, 감상성, 질투, 시기심, 열등감, 부끄러움
- 5 불량소녀—사회적 수치심의 구성
- 6 박정희근대화프로젝트의 국민만들기와 소녀성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8S1A5A2A01039420)

1960, 70년대에 대한 연구는 냉전과 군사주의, 새마을운동과 생산성 담론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어왔다. 이 글에서는 이 시기의 또 다른 특징으로 볼 수 있는 과학주의를 분석 주제로 삼고자 한다. 분석대상으로는 잡지 『여학생』 특집을 대상으로 삼았으며, ‘소녀’ 개념을 형성하는 과정을 젠더의 감정 재배치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1차 연구에서는 사춘기담론을 중심으로 의학, 과학 등 과학적 담론이 소녀 개념을 어떻게 자연화시키는지 살펴보았다. 이 글은 2차 작업으로 감정 재배치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내용 분석 결과 1960년대 특집과 1970년대 특집의 성격이 달라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1960년대는 이상적인 소녀상을 구성하는 데 집중되어 있다. 특히 감정관리와 신체관리가 중심 내용으로 판단된다. 감정은 명랑성, 감상성(센티멘탈리즘), 허영심(사치), 열등감(질투) 등의 특성이 두드러진다. 그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감정적 특성은 명랑성과 감상성이다. 이상적인 소녀의 성격은 명랑함이다. 집안의 꽃으로 항상 가정을 밝게 빛나게 하는 소녀가 이상적인 소녀상이며, 부정적 감정은 지나친 감상성이다. 명랑사회 건설이라는 국가정책과도 관련되어 있는 명랑성을 소녀성으로 표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명랑소설, 순정소설이 『여학생』의 대표적인 장르소설이라는 점도 이러한 소녀성과 관련 있는 것으로 보인다. 1970년대는 불량소녀와 순결한 소녀의 이분법으로 처벌담론이 강화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수치심을 소녀의 성격으로 구성하는 젠더의 감정 재배치가 이루어지며, 이러한 수치심은 불완전한 신체, 오염된 신체에 대한 혐오와 관련되어 사회적 수치심으로 형성되는 것으로 보인다. 성애화된 여성신체에 대한 사회적 수치심 구성으로 연결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감상적 소녀, 불완전한 신체에 대한 수치심은 기계신체로 구성되는 남성성이 혐오하고 버려야 하는 대상이 된다. 특히 식민지시기와 전쟁을 겪으면서 훼손된 남성성을 초남성성(기계적 남성성)으로 급속하게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여성은 남성이 버려야 할 감정과잉, 불안한 인간성을 투사하는 사회적 수치심의 대상으로 재구성된다. 소녀 개념을 둘러싼 감정의 재배치는 196,70년대 과잉노동력 주체로 재구성되는 남성성과 대치되는 국민만들기의 한 방법으로 볼 수 있다.

국문핵심어: 과학주의, 1960년대, 1970년대, 박정희근대화프로젝트, 잡지 여학생, 감정, 젠더

1 머리말

이 논문은 196,70년대 과학주의 담론과 젠더 기획에 대한 연구이다. 1960, 70년대에 대한 그간의 연구는 냉전과 군사주의, 새마을운동과 생산성 담론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왔다. 이 글에서는 이 시기에 두드러지는 또 하나의 특징으로 과학주의를 추출하고 젠더정치학과의 관련성을 분석 주제로 삼고자 한다. 이미 『사상계』와 『여원』, 『여학생』 등 이 시기 잡지에 대한 개괄적 연구를 통해 과학주의 담론이 기술민족주의와 기술결정론이라는 이념적 특징이 드러난다는 점을 분석하였다. 심화연구로 과학주의담론이 일상으로 신체화하는 과정을 분석하고 있다. 그 결과 『여학생』의 ‘소녀’ 개념이 과학주의 담론이 만들어낸 중요한 젠더 기획임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여학생』 특집을 대상으로 ‘소녀’ 개념을 형성하는 과정을 분석하고자 한다. 1차 연구에서는 소녀의 특성을 구성하는 성격을 중심으로 젠더의 감정 재배치가 이루어지며, 이를 자연화하는 방식으로 과학주의 담론(호르몬과 사춘기 담론)이 동원되는 방식에 주목하였다. 사춘기담론을 중심으로 의학, 과학 등 과학적 담론이 감성적 소녀 개념을 어떻게 본래적인 것으로 구성하는지 살펴본 것이다.¹ 이 글은 2차 작업으로 감정 재배치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젠더 배치에 대한 연구는 196,70년대 박정희 근대화프로젝트의 국민만들기² 과정을 분석하는 한 방법이 될 것이다. 분석대상 텍스트는 『여학생』³ 특집을 중심으로 하고자 한다.

잡지의 특집은 그 잡지의 이념적 특징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한 시대의 지배이념이 구성되어 가는 과정을 볼 수 있는 담론적 경쟁의 장이라 볼 수 있다. 물론 매달 발간되는 잡지이고 다양한 독자를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단일한 이념적 특징을 지닌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⁴ 쇠퇴하는 이념과 부상하는 이념들이 충돌하

1 이선옥, 「1960년대 과학주의 담론의 신체화—잡지 『여학생』에 나타난 소녀와 사춘기」, 『여성문학연구』 제42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7.

고 경쟁하면서 지배 이념으로 구성되어가는 담론의 장으로 이해하는 섬세한 시각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집의 전체 목록을 보면 일정한 경향성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러한 경향성이 한 시대의 지배 이념이 되고 독서교양을 통해 일상으로 신체화되는 과정을 발견할 수 있다. 잡지의 특집 분석이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이유도 그러한 시대상을 읽어낼 수 있는 한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2 과학소설 없는 생활의 과학화 잡지

196, 70년대 대표적 청소년 잡지는 『학원』과 『여학생』을 들 수 있다. 이 시기 과학입국의 정책과 청소년과학교육의 강조를 생각해 보면, 『여학생』은 과학교육에 대한 의지가 잘 드러나지 않는 특징을 보인다. 몇 편의 해외 과학소설 번역이 실리긴 하지만 『학원』처럼 본격적인 과학소설의 연재나 창작이 눈에 띄지 않는다.

- 2 공계옥은 「박정희 시대 일상생활 연구의 의미」(『국가와 일상』, 한울, 2008, 14-15쪽)에서 국가주도하에 습속, 신체, 언어와 사고의 근대화가 이루어졌고, 이것이 일상생활에 대한 철저한 규율과 관리로 나타났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니시카와 나가오의 국민의 탄생을 위해 필요한 요소를 인용하면서 분석도구로 삼고 있다. 니시카와 나가오는 공간의 국민화(균질, 평준화된 밝고 청결한 공간), 시간의 국민화(시간의 재편, 노동-생활의 리듬 등), 습속의 국민화(복장, 인사, 의식 등), 신체의 국민화(미각, 음감, 거주, 걸음걸이, 학교-공장-군대 등의 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신체 등), 언어와 사고의 국민화(국어, 애국심)를 국민만들기의 필요요소로 들고 있다. 이러한 규율화를 통해 “국민국가의 신체화”가 이루어진다고 분석하고 있다.(『국민이라는 괴물』, 윤대석 역, 소명출판, 2002, 32쪽, 69쪽.)
- 3 1965년 12월 창간된 후 1990년 11월 재정난으로 폐간할 때까지 약 25년간 월간으로 간행된 대표적인 여학생 잡지이다.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에는 1988년 12월호(24권 12호)까지만 남아 있다. 잡지 『여학생』에 대한 개관과 과학주의 담론의 특성에 대해서는 이선옥, 앞의 글, 230-235쪽 참조.
- 4 1970년대 순결교육이나 타락한 소녀에 대한 처벌담론이 증가하는 등 가부장적인 젠더이분법이 강화되는 시기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태영 등의 가족법개정운동에 대한 글들이 실리고(1973년 1월 특집), 「구원의 사랑과 열매」시리즈에서 에밀리 브론테, 마가렛 미첼, 버지니아 울프, 제인 오스틴, 조르즈 상드, 시모느 드 보바르 등을 소개하는 것도 이 시기이다.(1973년 1월부터 6월까지 시인 양승만이 연재한 내용은 확인되나 7월-10월이 결호여서 이후는 확인불가) 이처럼 잡지는 다양한 시대적 변화와 독자의 욕망을 담아내는 특징을 지닌다.

그보다는 사춘기나 생리, 순결 등 여성의 몸 관련 의학, 과학 담론이나 사춘기 감성관리 그리고 생활표준화를 위한 합리적 생활관리 등에 대한 과학적 설명이 주를 이루고 있다. 과학의 주체가 아닌 대상으로 여성이 구성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는 특징으로 보인다.

잡지 『여학생』은 여학생의 생활정보 잡지이며, 문학 중심의 잡지로 독서교양을 강조하는 청소년 교양지라 할 수 있다. 특집을 분석하기 전에 1960, 70년대 전체 목차에 나타난 단어의 빈도수를 확인해본 결과⁵에서도 이러한 특성이 드러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가장 많은 빈도수를 보이는 단어는 여학생과 생활 관련과 문학 관련 용어이다. 첫째로는 여학생 620회, 생활 314회(생활교실, 생활가이드, 생활태도, 생활특집, 생활아이디어 등)로 여학생 생활 정보 잡지임을 알 수 있다. 두 번째로는 문학관련 용어들이다. 문학 중심 잡지로 독서하는 소녀가 이상형으로 제시되고 있는 점과 관련되어 있다. 문학 143회, 소설 631회(연재소설, 명랑소설, 순정소설 등의 항목소개에 등장한 단어도 포함) 수기 184회, 시 62회, 수필 8회로 나타난다. 가장 많이 연재된 소설에 이어 수기라는 단어가 다음으로 많이 나타난 단어라는 점이 주목된다. 독자수기, 특별수기, 소녀수기, 문제소녀수기, 여학생수기, 고백수기 등의 항목이 연재항목으로 자주 등장한다. 1970년대는 저축수기, 생활수기, 희망수기 등의 연재코너가 등장하고 있어서 국가의 저축장려와 예비주부로서 알뜰생활의 모범을 보여주는 소녀들의 생활수기가 실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독서라는 단어는 23회 나타나지만 이 잡지의 특집이나 이상적 소녀의 요소로 꼽히는 주요 항목이 독서라는 점을 고려해 보면 이 잡지 전체가 독서하는 소녀를 구성하는 기능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셋째로는 소녀와 십대이다. 소녀 316회, 십대 217회 그리고 이들이 성장해서 도달해야 하는 이상적인 여성과 관련된 여성 188회, 여자 81회 등이 나타난다. 넷째로는 사랑 293회, 이성교제 27회로 아름다운 사랑과 타락한 이성교제가 높은 빈도수를 보인다. 다섯째로는 학교관련으로 학교 193회, 진로 71회, 우정 61회 등이다. 여섯째로는 건강관련 용어들로 건강 77회, 사춘기 41회, 순결 31회, 생리 39회를 볼

5 196,70년대 전체 목차 내용을 검토 후 자주 등장하는 단어를 추출하였고, 이를 대상으로 단어의 빈도수를 검색한 결과를 정리하였다.

수 있다. 일곱째 가족구성원으로서의 자질을 설명하는 단어로는 어머니 84회(어머니, 엄마, 모성 포함), 딸 70회, 가정 39회, 가족 11회 등장하고 있으며 기타로 과학 53회, 명랑 24회(명랑도테스트, 명랑소설 등), 눈물 23회, 가출 18회(70년대에 주로 다루어진 주제), 소년 37회, 민족 24회, 나라 47회 등이다.

좀 자세하게 단어의 빈도수를 살펴본 이유는 월간으로 발간되는 잡지를 단일한 성격으로 분석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목차에 나타나는 단어의 빈도로 내용이나 이념적 특징을 분석하기는 어렵지만 전체적인 개관을 해보면서 이 잡지가 지향하는 성격을 가늠해보는 정도로 삼을 수는 있을 것이다. 단어 빈도로 보면 이 잡지는 여학생의 생활을 규율하는 생활표준화와 관련이 있고, 이를 독서교양으로 전파하는 특징을 보이는 잡지로 볼 수 있다. 특히 독자수기, 여학생수기 등 수기를 통해 잡지의 교양이 신체화되어 다시 양피먹임(positive-feedback)으로 돌아오는 일종의 감정장으로서의 완결성을 가지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교양이 개인의 삶으로 신체화된 이야기가 다시 잡지의 수기로 돌아와 이념적으로 공고화되는 담론의 생산-소비구조의 완결성을 갖게 되는 것이다. 앞으로 연재소설이나 수기 분석이 이루어지면 이러한 가설이 좀더 명확하게 확인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 글에서는 우선 이 잡지의 특집에 나타난 소녀의 개념을 중심으로 감정의 젠더 재배치가 구성되는 과정을 분석하고 이러한 배치를 자연화하는 기제로 과학적담론이 동원되었음을 밝히고자 한다.

3 독서교양과 청소년 과학교육

1962년 박정희정부는 경제개발계획의 하부계획으로 제1차 기술진흥5개년계획(1962-1966), 제2차 과학기술진흥5개년계획(1967-1971)을 수립하고 과학기술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한다. 1966년 한국과학기술연구소가 설립되었고, 1967년 1월 과학기술진흥법이 제정되었으며, 같은 해 4월 과학기술처가 설립되었다. 연이어 과학기술개발장기종합계획(1967-1968)을 발표하고 과학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한다.⁶ 이러한 과학기술정책은 청소년 교육에도 반영되었으며, 이 시기의 청소년 과학소설, 과학잡지, SF영화,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과학은 미래 인재양성의 핵심요소로 꼽히게 되었다.

그러나 이 시기의 과학주의는 모두에게 선하다는 기술결정론적 성격을 지니고 있었으며, 독재권력이 집중되는 효과를 자연스럽게 만드는 정치적 작동에 대해서는 감지하기 어려웠다. 모두가 잘 살 수 있고, 모두를 문명의 세계로 이끌어 준다는 약속으로 과학주의는 마술적 조력자가 되었고, 제국주의적 팽창 욕구를 감춘 개발독재의 이데올로기적 장치가 된다는 점을 간과하게 만들었다. 이 글에서는 과학주의라는 이념이 기계신체에 대한 선망과 감정배제의 근대적 노동신체를 만드는 국민만들기의 내면화 방법의 하나임을 분석하고자 한다. 강제적 처벌의 방식이 아닌 규율의 내면화방식에서 과학지식의 작동에 대해서는 푸코 등의 권력이론을 통해서도 충분히 논의되어 왔다. 미셸 푸코는 “어떤 사회에 있어서도 신체는 지극히 치밀한 권력의 내부에서 포착되고 그 권력은 신체에 구속이나 금기 또는 의무를 부과”했음을 밝혀 신체가 바이오권력이 작동하는 핵심 장임을 포착하였다. 특히 근대 기술에서는 몇 가지 새로운 점이 등장했는데 첫째, 규제의 척도, 둘째, 규제의 객체, 셋째, 규제의 양상이 매우 세밀한 망을 형성하여 권력을 형성한다는 것이었다.⁷ 과학지식이 신체권력을 형성하는 이데올로기적 장치로 작동한다는 사실은 그간 많은 연구를 통해 우리 사회를 분석하는 데도 적용되었다. 이 시기의 대표적인 사상지 『사상계』나 여성잡지 『여원』 등을 통해서도 과학적 사고, 과학하는 국민에 대한 기사⁸가 자주 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특히

6 송효정, 「실험실의 미친 과학자와 제국주의적 향수」, 『대중서사연구』 제20권 3호, 대중서사학회, 2014, 280쪽. 학생과학 잡지의 국가주의적 이데올로기 전파에 대해서는 김지영, 「196-70년대 청소년과학소설 장르 연구—『한국과학소설(SF)전집』(1975) 수록 작품을 중심으로」, 『동남어문논집』 제35집, 동남어문학회, 2013, 조계숙, 「국가이데올로기와 SF, 한국 청소년 과학소설—『학생과학』지 수록작을 중심으로」, 『대중서사연구』 제20권3호, 대중서사학회, 2014, 최애순, 「우주시대의 과학소설—1970년대 아동전집 SF를 중심으로」, 『한국문학이론과비평』 제60집,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13, 장수경, 「1960년대 과학소설의 팽창주의 욕망과 남성성」, 『아동청소년문학연구』 제23호, 한국아동청소년문학학회, 2018 등 참조.

7 미셸 푸코, 박홍규 역, 『감시와 처벌』, 강원대출판부, 1993, 185쪽.

8 『사상계』 발간인 장준하는 특히 과학적 사고를 강조하는데 1962년의 권두언에서도 「과학하는 정부, 과학하는 국민」(『사상계』, 1962.7)이라는 제목으로 과학적 정신을 강조하는 글을 발표한다. 이 글은 “오늘날은 과학의 시대라고 한다. 그리고 과학적인 사회—국가일수록 더 부강한 것 같다”는 선언적 진술로 시작한다.

민족의 발전을 위한 방편으로 과학하는 국민이 이상형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과학주의담론은 ‘생활표준화’⁹를 중심으로 전파되고 일상의 내면으로 신체화된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삶에 대한 선망은 일상규율을 내면화할 수 있는 논리가 되었으며, 국민만들기의 원리가 되었다고 판단된다.

특히 생활표준화는 중산층의 삶을 구성하고 주체를 형성하는 요소로 독서교양을 통해 전파된다.¹⁰ 이 시기에 발간된 『여원』, 『여상』, 『여학생』 등의 여성잡지는 생활표준화와 관련되어 있다. 이 잡지들을 통해 과학담론은 신체화되고 일상의 규율로 기능하게 된다. 이 잡지에 실린 생활의 과학화와 서구여성들의 합리적 삶에 대한 선망과 여성작가들의 작품, 현상문예당선작들에 나타난 여성성의 재구성에서 두드러지는 특성은 서구 선망과 서구의 과학적 합리적 삶과 비교하는 부끄러운 문화(shame culture)를 벗어나자는 것이다.

이 시기 남성이 노동의 표준화와 관련되었다면 여성은 생활의 표준화를 담당하게 되었다. ‘남부끄럽지 않고 안락한 생활’을 영위한다는 것, 자신이 속한 계층의 사람들과 같은 방식으로 부엌을 배열하고 같은 잡지와 신문과 책을 읽는다는 것은 중산층의 형성과 관련되어 있다. 표준적인 삶에 대한 욕망을 가지는 것, 즉 기술산업사회의 생산모델을 일상으로 재구성하는 과정이 바로 생활표준화인 것이다.¹¹

이러한 중산층적 생활표준화가 우리나라에서 진행된 시기가 196, 70년대라

9 생활표준화란 중산층의 형성과정에서 남성이 노동표준을 여성이 생활표준을 구성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용어이다. 여성주의 과학자들은 1900-1940년대 이후 미국의 여성계몽이 과학주의 담론과 관련하여 식단, 건강, 가계설비, 안락함, 교육 등의 범주로 ‘생활표준’을 구성하고 전파하는 과정 분석한 바 있다. 자신이 속한 계층의 사람들과 같은 방식으로 부엌을 배열하고 같은 잡지와 신문과 책을 읽으려는 생활표준화는 산업화시대의 기술산업사회의 생산모델을 일상으로 재구성하는 과정이었음을 설명하고 있다.(루쓰 코완, 김성희 외 공역, 『과학기술과 가사노동』, 도서출판신정, 1997, 175-177쪽.)

10 천정환은 독서운동과 대통령기쟁탈전국자유교양대회를 중심으로 박정희레짐의 계몽을 분석한 바 있다. 이 시기의 강압적 계몽이 교양주의와 국민독서의 시대로 드러났으며, 이러한 교양주의는 강압적 계몽과 동시에 시민적 교양을 형성하는 이중적 의미를 갖게 된다고 설명하였다.([교양의 재구성, 대중성의 재구성, 박정희 군사독재 시대의 교양과 자유교양운동], 『한국현대문학』 제35집, 한국현대문학연구회, 2011, 310쪽.)

볼 수 있는데, 공간, 시간, 습속, 신체의 국민만들기가 진행되는 것이 이러한 생활 표준화이다. 잡지 『여학생』은 10대 소녀들의 라이프스타일을 표준화하고 소녀성을 구성하는 다양한 규율담론들을 제공하고 있다. 발간인 박기세의 창간 2주년 발간사를 보면 이 잡지의 성격이 잘 나타나 있다. 교양지로서 지식의 전파와 진학 조연, 내면세계의 카운슬러 역할까지 여학생들의 생활 전반에 걸친 교양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소녀상이 부재라는 여성들의 불행 앞에서 어떻게 십대의 내면세계가 오늘날의 서쪽에서 불어오는 문화의 풍조를 맞이하게 할까 하는 것이 지상명제였습니다. 교양지이되 지식의 보급이나, 진학을 위한 어드바이서가 되느냐, 불연이면 우리 여성들의 가난한 내면세계를 위한 카운슬링의 역이 되느냐의 진로를 찾기 수개월—결연히 면모를 형상화한 것이 교양지가 되되 우리 여성들의 내면세계를 위한 카운슬링 역이 되자는데 역점을 두게 된 것입니다. 삼종이란 운명 아닌 유교의 울타리 속에 여권 신장이란 인간본연의 신장을 갖지 못한 이 땅 여성들의 불행을 씻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본지 대표 박기세, 창간 이 주년을 맞으며, 1967.12)

이 잡지가 1965년 12월 창간돼서 1990년 11월 폐간까지 25년간 월간지로서 꾸준히 발간되었다는 사실은 『학원』과 함께 이 시기 여학생들의 삶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 잡지였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특히 여학생문학상과 수기공모 등 독자들의 글쓰기 참여를 통해서 잡지의 담론은 여학생들의 실제 삶으로 자연스럽게 전파될 수 있었다. 신체규율뿐만이 아니라 감정교육 담론들이 생산되고 소비되고

11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여성 교양잡지 여원 과 여상의 인기나 대중화 역시 이러한 ‘생활 표준’의 전파와 관련이 있다. 1960년 1월 『여원』에서 가계부가 처음 부록으로 제공되었던 사례나 생활수기 공모전 등 생활개선운동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생활표준화는 식민지시기 192, 30년대 우생학의 전파와 함께 사회개조론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지만 중산층의 형성과 시민들의 독서교양을 통해 생활시스템으로 자리잡게되는 시기는 1960년대 이후라 볼 수 있다.

다시 장으로 피드백되는 일종의 감정아비투스를 형성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잡지라고 볼 수 있다.¹²

먼저 창간호부터 1960년대 특집의 주제를 통해 잡지의 성격을 개관해 보면서 1970년대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창간호 특집은 이 잡지의 성격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어서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1965.2 창간호

특집: 한국의 소녀상

예찬: 소녀! 그이름은 신비의 계곡 / 오화섭

반론: 「잔다르크」는 있어도 소녀상은 없다 / 김진만

사관: 역사를 통해본 한국의 소녀상 / 조풍연

희망: 내가 바라는 소녀상 / 이하운

제삼의 견해: 내가 본 소녀상 / 리처드 러트

〈창간호 특집과 표지〉

창간호는 이상적 소녀상을 특집으로 하고 있으며, 표지 역시 독서하는 소녀상을 선택하여 이상적 소녀의 이미지로 삼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어서 1966년 1월호 특집이 사춘기, 2월호 특집이 자기발견이라는 점은 이 잡지의 방향성을 잘 드러내준다. 이상적 소녀의 이미지를 재구성하기 위해 신체적, 감정적 소녀성에 대한 과학적 설명이 이어지고, 그에 대한 실천규율이 자연스럽게 구성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체적인 주제를 개관해 보아도 이상적 소녀성의 재구성과 과학적 설명이 중심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67년 2월 10대 소녀의 철저적 연구, 1967년 3월 소녀상 재발견, 1967년 5월 우리들의 이상적인 여성, 1969년 12월 소녀상의 광장 등 이상적 소녀상에 대한 특집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이상적 소녀상이 되기 위한 관리 방법에 대한 다양한 의학적 과학적 이론들이 전개된다. 롤모델을 제시하는 특집까지 포괄해 생각해보면 압도적으로 이상적 소녀상의 구성에

12 이선옥, 앞의 글, 232-233쪽.

초점이 모아진다.(<부록 1> 참조) 이성교제와 성, 사랑, 일탈과 불량소녀에 대한 특집기사들이 증가하는 1970년대와 비교해 보면, 명확한 차이를 드러낸다.

이 잡지의 창간 목적을 잘 드러내는 1960년대 특집의 특성을 중심으로 소녀 개념의 감정 재배치를 살펴보고, 이후 1970년대 강압적 계몽의 시기에 감정을 둘러싼 젠더정치학의 변화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소녀성을 규율 관리하고 구성하는 생활표준화의 대상은 신체와 감정으로 나눌 수 있다. 이상적 소녀가 갖추어야 할 감정과 관리하고 버려야 할 감정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이러한 감정의 배치가 갖는 사회적 의미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4 감상적 소녀의 재구성—명랑성, 감상성, 질투, 시기심, 열등감, 부끄러움

1960년대 특집에서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소녀성의 특성은センチ멘탈리즘으로 명명되는 감상성, 감정과잉이라 볼 수 있다. 소녀의 특징은 사춘기의 호르몬 변화와 더불어センチ해지고 감정적으로 불안정해지는 시기라고 설명하고 있다.¹³ 이성적, 분석적, 과학적 관심이 커가는 소년과 달리 소녀는 음악이나 색채 같은 감각적인 부분에 예민해지며センチ멘탈리즘, 감정자체의 불안정성을 느끼는 경향이 강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여학생은 지적이기보다 감정적이다. 그러므로 무엇을 생각하기 전에 느낀다. 무엇을 비판하기 전에 직시한다. 그러므로 지적인 면이 약해지는 경향으로 개인적이며 폐쇄적인 생활을 하기가 쉽다.”¹⁴ “사고나 행동은 감동적이다. 논리도 감정의 논리이고 사실적이 아니다. 따라서 비법률적이다. 추상적인 것을 싫어한다. 과학적인 것보다 문학과 예술과 같은 직관적인 것을 좋아한다”¹⁵ 등등. 소녀성을 감정과잉으로 규정하는 글들이 자주 등장한다. 소녀는センチ멘탈리스트이고センチ멘탈리즘이란 “인생의 가치를 정서적으로 판단하는 태도”,

13 최신히(청량리뇌병원장/수필가), 「여성으로서의 십대의 위치」(『여학생』, 1968.2, 110쪽) 그 외에 조연현의 「문학적으로 본 사춘기의 감정」(『여학생』, 1966.1) 정창범(문학평론가)의 「センチ멘탈을 비판한다」(『여학생』, 1969.9) 등 다수의 글에서 사춘기의 호르몬 변화와 소녀의センチ멘탈리즘을 연결지어 설명하고 있다.

14 양병택(경희대 교수), 「여학생과 가정」, 『여학생』, 1966.2, 73쪽.

15 고영복(이대 교수), 「여학생과 사회」, 『여학생』, 1966.2, 75쪽.

“부정이 공공연하게 성행하고 부패가 들끓는 세상에서センチ멘탈리스트가 필요하다.”¹⁶는 긍정적인 평가도 이루어진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인생을 정서적으로 판단하는 태도라는 진술이다. 감정이 판단의 근거가 된다는 마사 너수바움의 감정론에 연결지어 생각해 보면 소녀성으로 감정이 배치된다는 것만으로 문제삼을 수는 없다. 감정이 어떤 판단을 포함하는 개인적 기록이고, 또한 혐오나 수치심처럼 법을 구성하는 사회적 판단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여성적 경험과 자산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시기 감정의 젠더 배치는 이성과의 대비 속에서 열등한 가치, 배제된 가치가 된다는 점이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1970년대에 접어들어 국민만들기의 규율이 강화되면서 사회적 수치심의 대상으로 여성이 재구성되는데, 이 과정에서 타락한 소녀들에 대한 비난, 수치심의 부여를 통해 소녀의 감정이 열등성으로 강화된다는 점도 중요하다. 1970년대 특집에서 가출소녀에 대한 계몽과 성적 타락에 대한 비난의 글이 급증하고 있는 부분이 그러하다.

특집 내용 분석 결과 1960년대와 1970년대의 감정의 요소가 달라짐을 알 수 있었다. 1960년대는 이상적인 소녀상을 구성하는 데 집중되어 있다. 감정은 명랑성, 부끄러움(수줍음), 허영심(사치), 열등감(질투) 등으로 드러난다. 그 중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감정적 특성으로 명랑성을 들 수 있다. 이상적인 소녀의 성격은 명랑함이다. 집안의 꽃으로 항상 가정을 밝게 빛나게 하는 소녀가 이상적인 소녀상이며, 부정적 성격으로는 지나친 허영심, 열등감(질투심) 등이 주로 등장한다. 명랑소설, 순정소설이 『여학생』의 대표적인 장르소설이라는 점도 이러한 명랑한 소녀성과 관련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민희식(성대불문과교수)의 「명랑성/사철나무와 같은 생리」(『여학생』, 1967.7)에서 소녀의 명랑성은 다음과 같이 정의되고 있다.

소녀들의 명랑한 기질의 가장 큰 특징은 자발성에 있다. 이것은 소녀의 감정의 비약, 호기심, 독창성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아주 자연스럽고 순진한 감정이다. 소녀의 귀여운 점이 바로 이러한 명랑성에 있는데 이러한

16 정창범, 앞의 글, 47쪽.

자연스러운 감정은 자칫하면 경솔하게 느껴지기가 쉽다. 어른들은 흔히 이러한 감정을 밖에 나타내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이것을 억누르는 것을 극기라고 부르고 찬양하기도 한다. 허나 자발적인 태도는 생생한 정신의 약동이며 또한 자기에 대해서 자신만만한 태도이다. 이 자발성은 억압당하거나 어떤 집념에 사로잡히면 신경증 때문에 사라지고 소녀는 비뚤어지거나 매우 우울해진다. <상드>의 《어린 파데트》란 작품 속에 자발적 기질을 가진 소녀 파데트가 주위 사람들의 박해로 인해 호기심이 고독을 찾고 우울해지는 과정을 그려내고 있다.(104쪽)

명랑성은 예비주부로서 가정의 분위기를 밝게 만드는 딸의 역할에 필요한 감정이다. “딸은 집안의 산 화초”이고, “어머니를 도와 살림을 거들고 집안 구석 구석에 여성의 손길을 뻗침으로서 전체의 분위기를 부드럽고 화사하게 해주는 딸”¹⁷(94쪽)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명랑함은 사회적 이데올로기와도 연관되어 있는데, 박정희근대화프로젝트의 ‘명랑’¹⁸은 사회개조의 키워드였다. 이러한 명랑함의 감정을 맡는 일은 소녀의 역할이었다. 1970년대 명랑소설이나 하이틴 영화에 등장하는 남학생의 성격을 보면 명랑은 소년의 성격으로도 제시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소년의 명랑성이 성장서사와 연결된 도구적 가치인 반면 소녀의 명랑성은 정체성을 구성하는 핵심적 가치로 제시된다. 집안의 꽃이자 기둥으로 명랑성을 유지하는 정서적 역할을 담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 반면에 부정적 감정으로 지적되는 것은 허영심과 질투심, 열등감이었다. 장경학(동국대법대교수)의 글 「허영심/많은 것을 갖고 싶어하는 마음」(『여학생』, 1967.7)에서는 “지나친 소유욕이 남성일 경우는 야심, 욕망 등으로 표현되지만 여성일 경우는 허영심으로 바뀌어진다” “그것은 여성의 허영심에는 물질적인 것이 많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96쪽)이라고 허영심을 비판하고 있다.

17 김세영(이대영문과교수), 「필요악/어리광과 응석과 치기」, 『여학생』, 1967.7, 94쪽.

18 박정희 대통령은 1966년 1월 연두 교서에서 국민들에게 밝고 명랑한 사회분위기를 만들고 생산에 기여하는 인간을 개발해 ‘조국근대화’를 달성해야 한다며 1970년대 후반에 도래할 풍요로운 ‘대량 소비 시대’를 약속하였다.(강성규, 「태일과 함께 ② 1966년의 이상한 결심」, 『뉴스민』, 2019.6.5.)

남성의 경우 자본주의적 성취 욕망과 결부되지만 여성의 경우 허영심이라는 속물성으로 연결짓는다는 것은 근대 초기 신여성담론에서부터 꾸준히 이루어진 감정의 정치이기 때문에 새로울 것은 없어 보인다. 그보다는 질투심과 열등감에 대한 새로운 설명들이 눈에 띈다. “적당한 샘과 그것을 무마시키는 〈아량〉이 겸비했을 때 여성은 〈충명〉하게 느껴진다. 충명한 여성은 〈나〉 혼자 고립되지 않고 〈우리〉 상호간의 평화를 창조할 수 있다.” “〈샘이 많은〉 일은 여성의 한 특질이기도 하지만, 나에게서는 여성의 매력의 하나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여성이 너무 대범하고 신경이 굵고 보면 매력이 없다(98-9쪽)”¹⁹는 설명은 여성의 질투심에 대한 기본적인 관점으로 보인다. 중산층을 구성하는 생활표준화와 질투심은 함께 탄생하는 감정이다. 다른 집처럼 살고, 먹고, 잡지나 텔레비전을 보고, 여가를 즐기고 싶은 욕망 즉 중산층적 감정인 질투심을 담당하고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도 소녀성의 감정으로 배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열등감 역시도 비교의 감정이고 좌절의 감정인데 미디어의 상업성이 변창하는 시대에 접어들면서 외모나 남자친구, 가난한 가정에 대한 열등감을 호소하는 독자 상담이 자주 등장하고 이에 대한 극복방법이 제시되는 방식²⁰으로 여성의 특성이 정착되어간다. 소녀의 정체성이 감정과 연결되고, 그 감정이 잘 관리되어야 한다는 논의들이 소녀성 구성의 핵심 요소라 생각된다. 소녀가 감상병, 우울증에 걸리지 않도록 잘 관리하는 것(1976년 11월 특집 ‘가을의 진통’에서 김은우의 「우울증」, 194쪽)이 생활관리를 통한 소녀성 구성의 주요한 요소라 볼 수 있다.

5 불량소녀—사회적 수치심의 구성

-
- 19 박남수(시인), 「질투심/아량이 부족한 가슴」, 『여학생』, 1967.7, 98-99쪽. 그 외에 「특집: 질투」(『여학생』, 1972.2)에서는 「질투의 고금」 「질투심의 아름다운 승화」 「질투가 많습니까? 성격개조 아이디어」 등의 기사를 실고 있다.
- 20 특별기획 「열등감을 극복하는 다섯 가지 힌트」(『여학생』, 1967.8)에는 무다리 등 신체적 열등감, 성적고민, 남자친구가 없다는 고민, 가난한 가정에 대한 열등감 등에 대한 극복방법이 제시되고 이어서 소녀들의 수기가 연결기사로 등장한다. 「특집 비정의 선고에 거역한 위인소전—열등감이 삶의 부등식을 푼다」(『여학생』, 1967.10), 「여학생이란 할인받는 지역 사회」(『여학생』, 1967.11)

1970년대는 1968년 12월 5일 국민교육헌장의 반포와 함께 시작된다.²¹ 전면적인 계몽의 시대가 도래했고, 실제 특집의 내용도 청소년의 불온함에 대한 관리와 규율을 특징으로 한다. 1970년대는 타락한 소녀(잡지에서는 불량소녀로 명명되고 있다.)²²와 순결한 소녀를 구성하는 시대로 변화하는데 1970년 8월 ‘여학생의 가출’ 특집은 이 시대의 지배담론을 잘 보여준다.²³ 특집에서 가출을 다룬 것은 이때가 처음으로 ‘가출소녀가 늘어간다’, ‘나는 가출소녀였다’ 등의 기사를 싣고 있다. 1972년 4월 특집도 ‘방황하는 10대의 가출’이었으며, 순결, 수치심, 이성교제 등의 특집기사가 급증하고 있다. 에로티시즘의 상업문화가 지배문화로 등장한 시기이며, 농촌에서 상경하는 소녀들과 여공이 급증하는 한편 소녀들에 대한 관리와 규율화가 필요한 시기에 두드러지는 감정적 특징이 수치심이라는 점은 매우 중요하다. 에로티시즘의 대상이 된 타락한 소녀에 대한 사회적 수치심의 형성, 즉 일정한 대상에 대한 혐오의 방식으로 단일성 주체로 국민만들기가 진행되는 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

1974년 12월 특집은 「수치심을 극복하자」이다. 이 특집에 실린 의학박사 광동일의 글 「사춘기 소녀의 수치심」의 한 대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청소년기에 접어들면 누구나 나를 찾기 위해서 몸부림친다.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남의 눈에 내가 어떻게 보일까, 도대체 「나」 자신은 무엇인가 하면서 「나」의 존재의미를 찾는 위기를 경험한다. 그래서 이 청

21 196, 70년대 청소년담론에 대한 연구는 1968년 ‘국민교육헌장’의 근면한 국민만들기, 미래의 국민으로서의 청소년 이미지에 대한 연구들이 나와 있다.(권인숙, 「1950~1970년대 청소년의 남성성 형성과 국민 만들기의 성별화 과정」, 『한민족운동사연구』 제56권,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08, 나윤경, 「60~70년대 개발국가 시대의 학생잡지를 통해서 본 10대 여학생 주체형성과 관련한 담론분석」, 『한국민족운동사연구』 제56권,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08) 이 연구들에서도 지적하는 것처럼 주로 소년의 경우 예비 국민으로서 국민만들기와 관련되어 있다면 소녀의 경우는 예비 현모양처로서 구성된다.

22 「요 주의! 이런 친구가 불량소녀다」, 『여학생』, 1972.6.

23 불량소녀에 대한 연구는 정미지, 「1960년대 문학소녀 표상과 독서양상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논문, 2011, 허윤, 「1960년대 불량소녀의 지형학」, 『대중서사연구』 제20권 2호, 대중서사학회, 2014 등이 있다.

소년기를 어떻게 원만하게 극복하느냐에 따라 건전한 주체의식이 형성되고 건강한 어른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주체의식의 형성과정에서 여러 가지 수치심이 생길 수 있겠다. (...) 자위행위가 수치심을 낳기도 하는데 이 시기의 남녀는 자위행위를 하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을 경우 흔히 그러한 행위는 신체나 정신면에 해를 줄 것이라고 상상해서 나쁜 것, 죄스러운 것, 또는 부끄러운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특히 소녀들은 소년들과 달리 월경을 하기 때문에 월경 전에 여성의 역할과 성에 대한 예비지식이 없으면 갑자기 월경을 하여 심한 두려움과 창피를 느끼기도 하고, 좀 늦어지면 있을 것이 없다는 생각에서 수치심이 생기기도 한다.(111쪽)

이 글에서 나타나는 수치심은 성적인 것 특히 소녀들의 월경과 관련되어 있다. 피흘리는 여성의 몸이 수치심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문학평론가 강인숙의 글 「심리적으로 보는 수줍음」(『여학생』, 1974.3)에서도 “성을 불결한 것으로 보는 선입관을 가지고 성적인 갈망이 커가는 자기의 내면을 바라볼 때 인간은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122쪽)”으며, 소녀들은 자신의 불완전함에 부끄러움을 느끼는데, 특히 이상주의자인 소녀들은 자신의 신체, 재능 부족 등에 열등의식을 느끼고 부끄러움을 느낀다고 설명하고 있다.(123쪽)

이러한 성적인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대상이 가출한 불량소녀들이다. 가출은 모든 범죄의 근본이며, 봄이 오면 십대의 가출은 연례행사가 되는데 이들이 성적으로 타락한 소녀가 되는 것이다. 강압적 교육으로 일관하는 학교가 싫고, 지나친 노파심으로 인한 간섭이나 무관심한 방임으로 대하는 부모가 역겨워서 가출하지만(「계절이 몰고 온 십대의 가출」, 『여학생』, 1974.5, 136-137쪽) 결국 성적으로 타락하고 불량한 소녀가 된다. 여름방학, 바캉스 관련 특집들도 불안한 충동을 잘 관리하지 못 하면 순결을 잃고 타락한 존재가 된다는 계몽적 기사가 다수이다.(1977.7월 특집 ‘사건, 사건! 여름을 주의하자’, 1976년 7월 특집 ‘이성교제’ 등) 사건여학생, 독자수기 등 시리즈코너를 통해 순결을 잃고 타락한 소녀들의 사례를 끊임없이 재생산하고 있어서 이러한 타락에 대한 공포는 심리적 수치심으로 각인되는 효과를 낳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1970년대 부각되는 불량소녀담론과 수치심은 당시의 통제적인 국민만들기와 관련이 있어 보인다. 노동력으로 과잉 구성되는 남성주체가 기계신체에 대한 상상력으로 전개되는 반면, 불안한 감정을 지니고, 피흘리는 동물적 육체를 지닌 여성성은 수치심의 대상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인간적 감정과 육체가 수치심으로 재구성되는 과정이 1970년대 소녀성의 구성이라고 생각된다. 1974년 12월 특집 ‘수치심을 극복하자’에 이어지는 1975년 1월 특집 ‘주니어에게 주는 나의 제안’은 수치심을 일으키는 타락한 소녀에 대비되는 이상적인 소녀의 특성을 대비시키고 있다. 이상적인 소녀상의 특징은 침착성과 인내이다. 박목월의 「내일을 위한 오늘의 늙름한 인내」에서는 10대 후반기 청소년들이 가져야 할 바람직한 정신자세에 대해 괴로움을 참고, 배우며, 그것에 감사를 보낼 수 있는 침착성과 인내라고 강조하고 있다.(98쪽) 맑고 밝은 소녀성을 지키고 인내하면서 건전한 주체의식을 지닌 건강한 어른이 되기 위해서 소녀는 맑고 밝은 몸과 마음을 지키고 키워나가야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순결이고, 순결을 지키지 못한 타락한 소녀에 대한 처벌은 당연한 것이 된다. 1975년 4월 특집 ‘자극시대’도 흥미롭다. 윤금초의 「자극시대를 사는 지혜」에서는 텔레비전, 영화, 잡지 등 순결지식이 범람하는 속에서 순결에 대한 바른 지식과 잘못된 지식을 분별할 수 있는 판단력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순결교육의 목표는 생물학적 교육과 인간학적 교육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중 생물학적 교육—좀더 자세하게 설명하면 인간의 생식계통의 구조, 생식계통의 기능, 예컨대 초경, 정액, 성행위, 수정, 임신, 출산 등의 문제라든지 혹은 호르몬의 작용, 유전의 문제, 성의 결정, 또 성병 등의 병리학적인 문제 등에 관해서 학교나 선생님들이 소홀히 하고 있다”(106쪽)라고 생물학적 교육의 부족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결혼을 할 때까지는 순결을 지켜야 한다든지 하는 즉 여러분의 주위에 성벽을 둘러치는 교육은 대단히 낡아빠진 도덕 교육밖에 되지 않았습니다.”(106쪽)라는 현실적인 진단을 내리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객관적 지식에 대한 필요성도 타락한 소녀들에 대한 처벌담론과 이를 입증해주는 수기와 뒤섞이게 되면 담론적 경쟁에서 변화를 이끌기 어렵게 된다. 1973년 5월 특집 ‘순결’을 살펴보면 박준희(이대교수)의 「순결은 왜 필요한가」에서 사용되는 단어들에 눈에 띈다. “순결이란 성의 관련된 부분을 중심으로 그 고고하고 깨끗하고 건강하고 위생적이

고 사람으로서의 부끄러움과 깨름직함과 죄악감이 생기지 않게 하는 일을 말한다.”(133쪽) 이 글에서 강조되는 감정은 고고하고 깨끗함과 대비되는 부끄러움과 깨름직함과 죄악감이다. 전찬화(이대교수)의 「한국청소년의 순결관」은 이를 통계를 통해 입증하는 글로 청소년대상의 조사에서 응답자의 90%가 순결이 필요하다고 답했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순결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절대적인 필요와 공리적인 필요가 반반 정도이고 여자에게 순결성이 더 요구된다는 결과도 제시되어 있다. 여기에 우리조상들은 순결을 결혼생활과 가정생활의 행복을 보장해주는 필수조건으로 삼고 살았으며, 순결이 가져다주는 첫 번째 이득은 양심의 가책에서 벗어나게 해 주는 것이라는 설명이 이어진다. 또한 성 도의의 문란은 사회를 어지럽게 만들 뿐만 아니라 사생아를 많이 낳게 하여 국가적인 시책에도 커다란 지장을 가져오게 한다(136쪽)는 주장도 덧붙여 놓았다.

수치심은 몸과 관련된 감정이다. 마사 너스바움은 수치심이 완전한 신체, 완전한 통제력을 지니려는 원초적 욕구에 기인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한 폄하와 어떤 형태의 공격성과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인간의 근본적인 불완전성을 부정하고 완벽한 자아를 상상하기 위해서는 폭력적인 형태로 타인에게 자신의 불완전성을 투사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폭력적 혐오방식이 사회적 수치심의 대상을 구성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1차 대전 후 독일남성이 겪은 수치심은 강철같은 남성상을 요구하게 되었고, 이를 구성하기 위해 타자로서의 여성은 허약한 인간의 감정과 신체를 지닌 수치스럽고 혐오스러운 존재가 되었다. 공산주의자, 유대인, 빈민 등도 혐오스러운 존재가 되었는데, 이들은 사회에 위협이 되는 집단으로 증오스러운 여성성이 확장된 것으로 인식되었다고 설명한다.²⁴

이러한 설명은 1970년대 국민만들기에서에서 진행된 남성성과 여성성의 재구성에 대해 분석하는 데도 유용하다. 1970년대 남성성은 100% 노동력으로 기

24 마사 너스바움은 혐오는 동물적 취약성에 대한 수치심의 경험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서 남성이 강철과 금속의 이미지에 강박적일 정도로 집착을 보이는 것은 인간의 유한성은 수치스러운 것이고, 숨겨야 하는 것이며, 나아가 초월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조계원 역, 『혐오와 수치심』, 민음사, 2015, 205쪽, 378-384쪽.)

능하는 생산성담론의 주체가 되어야 했다. 이를 위해 남성성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기계신체를 선망하고 기계신체에 대한 상상적 통일성을 위협하는 요소들은 모두 혐오하고 제거해야 한다. 로봇 태권브이를 꿈꾸며 인공의 국민적 신체(national body)로 성장하는 소년과 달리 인간의 취약성을 드러내는 특징들은 여성성으로 구성되는데 특히 소녀는 이러한 젠더 기획의 핵심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사춘기 감정관리(센티멘탈리즘)와 신체관리(생리혈, 성교를 통한 오염 등은 모두 신체의 통일성을 위협하는 위험한 요소가 된다)에 대한 과학적 설명들이 강조되며, 감정적이고 불완전한 신체가 소녀의 특징이 된다. 순결교육이 강화되는 것도 이 시기이다. 타락한 신체 즉 오염과 전염의 공포로부터 벗어나 완벽한 국민적 신체로 거듭날 수 있다는 상상의 담론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소녀 담론의 핵심이라 볼 수 있다. 순결은 1960년대 기사에서도 등장하지만 청소년교육으로 제도화되어, 이성교제, 수치심 등과 연결된 담론이 형성되는 시기는 이 시기이다. 특집에서 이성교제, 수치심 등이 증가하는 현상과 더불어 1970년대 특집은 수기가 자주 등장하는데, 불량소녀들의 수기나 르뽀와 연결되어 처벌담론을 형성하게 된다. 순결교육 강화를 위해서 1977년 11월 사임당교육원을 개원하고, 1978년 3월 13일 제1기 교육을 시작하여 5박 6일간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들의 합숙교육이 실시되기도 하였다. 기계적 남성성을 구성하기 위해 버려야 할 인간적 특성들을 부여하고 이를 관리하는 다양한 담론들이 ‘소녀’의 개념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6 박정희근대화프로젝트의 국민만들기와 소녀성

196, 70년대 『여학생』 특집을 분석해본 결과 이 잡지에서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소녀성의 특성은 감상적 소녀라는 용어로 소녀의 핵심적 정체성을 감정으로 구성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이상적 소녀의 성격이 명랑성이라면 감상적 소녀는 미숙함의 표지가 된다. 미숙함은 센티멘탈리즘으로 명명되는 감상성, 감정과잉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소녀의 감정은 과학적 담론 주로 사춘기 호르몬 담론²⁵

25 호르몬담론에 대해서는 이선옥, 앞의 글, 243쪽 참조.

을 통해 소녀성으로 자연화되는 한편으로 규율 관리해야 하는 대상이 된다. 감정 관리 역시도 신체와 결부된 개념으로 설명되고 전개되는 자연화 방법은 이 시기 의학, 과학지식의 대중화와 과학적이라면 모두 옳다라는 신념이 전제되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다. 특히 신체적 순결과 감정적 수치심의 연결은 신체적 불완전성이나 오염에 대한 공포 등을 매개로 자연스럽게 연결된다는 점이 눈에 띈다.

이 글에서는 감정의 젠더 재배치와 그 사회적 의미를 분석하는데 집중하기 위해 의학과 과학 담론이 어떻게 소녀와 사춘기, 호르몬에 대해 설명하는가는 충분히 다루지 못했다. 감정관리에 대한 세밀한 분석과 규율담론이 이 시기 사춘기 호르몬담론을 기반으로 전개될 수 있었음을 지적하는 것으로 대신하고 이후 이 부분에 대한 연구도 좀더 진전시키고자 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푸코는 근대 기술에서 바이오권력이 신체에 각인되기 위해서는 첫째, 규제의 척도, 둘째, 규제의 객체, 셋째, 규제의 양상이 매우 세밀한 망을 형성하여 권력을 형성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 잡지의 특집을 통해 분석해본 소녀의 감정에 대한 세분화된 분석과 관리규율은 이러한 푸코의 분석에서 보아도 규제의 대상과 척도와 양상이 매우 세밀하게 전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60년대가 명랑사회의 표상으로 명랑한 소녀를 이상적 소녀상으로 재구성하는 시기였다면 1970년대는 강압적 계몽과 규율화가 진행되는 시기라 볼 수 있다. 이 시기에 소녀성의 특징은 수치심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수치심은 순결을 지키지 못한 타락한 신체, 오염된 신체에 대한 부정적 감정으로 구성된다. 이는 1970년대 성애화된 여성신체에 대한 차별과 연결된다는 점에서 여성 신체에 대한 사회적 수치심으로 이어진다. 여성의 타락한 신체, 오염된 신체에 대한 사회적 수치심의 구성은 이 시기 남성성의 구성과 관련지어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식민지 시기와 전쟁을 겪으면서 훼손된 남성성을 급속하게 회복시키고, 생산성을 위한 노동력 주체로 만들기 위해서는 자신의 나약함을 타자에게 투사하고 혐오하는 방식을 통해 남성성을 재구성하게 된다. 이때 과잉 상상되는 노동력신체(기계신체)를 위해서 버려지는 허약한 신체, 불완전하고 오염된 신체는 여성성으로 구성되고 버려진다. 이러한 버려진 인간성에 대한 공포와 불안을 잠재우는 방식이 사회적 수치심의 구성과 그 수치심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보여주어야 하는 타자의 존재다. 그러한 사회적 수치심을 구성하는 과정이 가출한 불량소녀에

대한 처벌담론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기본자료

『여학생』, 여학생사, 1965.12월-1990.11월

단행본

공제욱, 『국가와 일상』, 한울, 2008, 14-15쪽.

니시카와 나가오, 윤대석 역, 『국민이라는 괴물』, 소명출판, 2002, 32쪽-69쪽.

루쓰 코완, 김성희 외 공역, 『과학기술과 가사노동』, 도서출판신정, 1997, 175-177쪽.

마사 너스바움, 조계숙 역, 『혐오와 수치심』, 민음사, 2015, 205쪽, 367, 378~384쪽.

미셸 푸코, 박홍규 역, 『감시와 처벌』, 강원대출판부, 1993, 185-190쪽.

송성수 편역, 『우리에게 기술은 무엇인가』, 도서출판녹두, 1995, 28-43쪽.

논문

권인숙, 「1950-1970년대 청소년의 남성성 형성과 국민 만들기의 성별화 과정」, 『한민족운동사연구』 제56권,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08, 281-321쪽.

김양선, 「1960년대 여성의 문학·교양 형성의 세대적 특성:잡지 『여학생』의 문학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이론연구』 제61집, 현대문학이론학회, 2015, 27-49쪽.

김윤경, 「해방 후 여학생 연구」, 『비평문학』 제47권, 한국비평문학회, 2013, 37-62쪽.

김지영, 「1960-1970년대 청소년과학소설 장르 연구-『한국과학소설(SF)전집』(1975) 수록 작품을 중심으로」, 『동남어문논집』 제35집, 동남어문논집, 2013, 125-149쪽.

나윤경, 「60-70년대 개발국가 시대의 학생잡지를 통해서 본 10대 여학생 주체형

- 성과 관련한 담론분석], 『한국민족운동사연구』 제56권,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08, 323-374쪽.
- 송효정, 「실험실의 미친 과학자와 제국주의적 향수」, 『대중서사연구』 제20권 3호, 대중서사학회, 2014, 271-308쪽.
- 이선옥, 「1960년대 과학주의담론의 신체화—잡지 『여학생』에 나타난 소녀와 사춘기」, 『여성문학연구』 제42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7, 225-254쪽.
- , 「1960년대 과학주의와 젠더의 재구성—『사상계』를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제39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6, 261-302쪽.
- 장수경, 「1960년대 과학소설의 팽창주의 욕망과 남성성」, 『아동청소년문학연구』 제23호, 아동청소년문학학회, 2018, 245-277쪽.
- 정미지, 「1960년대 문학소녀 표상과 독서양상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논문, 2011, 1-140쪽.
- 조계숙, 「국가이데올로기와 SF, 한국 청소년 과학소설—『학생과학』지 수록작을 중심으로」, 『대중서사연구』 제20권3호, 대중서사학회, 2014, 415-441쪽.
- 천정환, 「교양의 재구성, 대중의 재구성: 박정희 군사독재 시대의 ‘교양’과 자유교양운동」, 『한국현대문학연구』 제35집, 한국현대문학회, 2011, 281-315쪽.
- 최애순, 「우주시대의 과학소설—1970년대 아동전집 SF를 중심으로」, 『한국문학이론과비평』 제60집, 한국문학이론과비평, 2013, 213-242쪽.
- 허윤, 「1960년대 불량소녀의 지형학」, 『대중서사연구』 제20권 2호, 대중서사학회, 2014, 103-130쪽.

(1) 『여학생』 1960년대 특집 주제 분류

〈『여학생』 특집-60년대〉

① 이상적 소녀상의 재구성(한국의 소녀상, 소녀상 재발견, 자기발견, 이상적인 여성 등)

- 65.12 한국의 소녀상
- 66.02 자기발견
- 66.03 정(精)분석
- 67.02 10대 소녀의 철저적 연구
- 67.03 소녀상 재발견
- 67.05 우리들의 이상적인 여성
- 67.06 가정사정: 소녀들의 반가정심리에 대한 엘리뜨들의 카르테
- 67.07 여학생을 위한 아름다운 고발 팔음계
- 67.08 특별기획
- 67.12 침대 위에 우는 사랑의 종소리
- 68.05 모성애의 참모습
- 69.02 딸: 이브의 집단 그 공화국을 위한 지상 세미나아
- 69.09 침대 경영학 여학생의 이십사시간
- 69.12 소녀상의 광장: 조용한 열정의 노래
- 70.02 침대의 개성
- 70.03 제복의 소녀를 보는 수필적인 찬미
- 70.05 우리들의 삼중주
- 70.06 그 꽃과 나의 추억
- 70.08 여학생의 가출

② 침대, 사춘기 특성의 과학적 설명(이성교제, 호르몬 변화, 신체 변화, 건강, 심리 등)

- 66.01 사춘기
- 66.10 침대의 한계
- 67.11 일선교사의 관측과 교단에 온 위기
- 68.02 침대의 의학
- 68.07 침대의 지대
- 68.08 소녀시대: 16세, 그 모순투성이의 풍차
- 69.02 준특집: 그날: 정기예방손님 연구
- 69.03 학교의학에 대한 제언: 순결교육 지침서와 학교당국의 이런 인식은 어떨까?
- 69.08 침대, 그 개화를 위한 취주악

③ 연애, 이성교제

- 66.04 주우니어카르테: 방황하는 심혼: 소설적인 어드바이스
- 66.07 창을 열고 밝게—이성교제 그 그림자에 잠긴 문제점
- 66.09 애정과 이성: 어느 소녀의 단발비곡
- 66.11 아름다운 청춘을 위하여
- 70.12 10대와 이성교제

④ 일상과 감정교육(계절감상, 여름방학, 성탄절, 생활계획, 취미, 문학 등)

- 66.06 유혹 계절(프로울로그)
- 66.08 풍선기—여학생의 욕망카르테
- 66.12 죽음을 생각하는 마음—10대의 자살
- 67.04 호기심과 설레이는 계절
- 68.04 내가 당한 사월 바보/만우절여화
- 68.06 바람에 바람에 청산별곡
- 68.09 여름방학
- 68.12 십대를 치루는 성야(聖夜)
- 69.05 틈에이저문화
- 69.11 십대의 계절풍
- 70.07 건전한 미녀로 한여름을
- 70.11 예뻐지는 가을의 건강과 미용

⑤ 바람직한 인생관과 롤모델(주니어 인생론, 이상적 인물 등)

- 66.05 남을 알고 나를 아는: 세계학생들의 생활과 인생관
- 67.09 나를 사로잡은 일인의 이상상
- 67.10 비정의 선고에 거역한 위인소전: 열등감은 삶의 부등식을 푼다
- 68.03 주우니어를 위한 인생론
- 68.11 조그만 인생론
- 69.01 바람직한 세대에 대한 제언
- 69.04 불가사의 십장: 사춘기군 해학에세이
- 69.06 나의 개안! 살아가는 의미
- 69.07 나를 키워준 한사람의 이상상: 문학과 영화속의 주인공의 지혜와 용기에서
- 69.10 문예적인 너무나 문예적인: 내 가슴에 살아남은 명작
- 70.01 우리들의 정신적인 좌표—지상인물심포지움
- 70.09 세계의 주니어들

⑥ 진학과 학업(대학입시, 신학기 생활, 직업선택 등)

- 67.01 영광의 아침을 향하여
- 68.01 10대의 우리 모두 웃는 해를 위한 5장—새로운 학원풍토진작모색
- 68.10 신학기의 학원생활 건강한 신체에 건전한 사색을 위해
- 70.04 여학생이 열수 있는 기능의 세계
- 70.10 여학생과 직업선택

(2) 『여학생』 표지-소녀이미지



65.12 창간호 독서하는소녀



66.01 사춘기



66.02 자기발견



66.03 정분석



66.04 주니어카르테



66.05 세계학생의생활



66.11 아름다운청춘



66.12 십대의자살



67.01 진학



72.05 여학생문학상발표



72.06 불량소년



72.07 십대의심리



72.08 위험한계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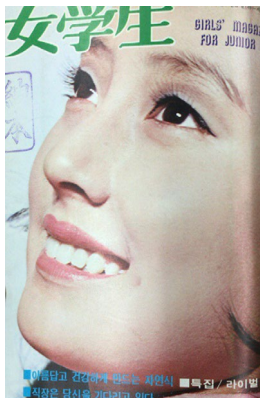
72.09 표지모델시선변화



72.10 신체규율담론



72.11 진학



72.12 표지콘테스트



74.01 여성의직

Abstract

Scientism and the reorganization of gendered definitions of emotion
-196,70s Jounal 『Yeohaksaeng』

Lee, Sun-ok

This paper closely analyzes the discourse of scientism and the construction of gender in 1960s and 1970s South Korea. Existing scholarship on the 1960s and 1970s often discusses cold war politics, militarism, the New Town Movement, and the discourse of productivity. To supplement this scholarship, this essay designates scientism as an additional defining characteristic of this period in South Korean history. More specifically, I explicate the formation of the concept of girlness through an analysis articles appearing in the magazine 『Yeohaksaeng』(Schoolgirl). I show that the nature of editorials appearing in 『Yeohaksaeng』 differ greatly from the 1960s to 1970s. Articles from the 1960s concentrate on ideal constructions of girlhood. In particular, controlling one's emotions and taking care of one's body constitute a large portion of writing from this decade. The emotions of girls are spoken of in terms of cheerfulness, sentimentality, vanity, and jealousy. Among these, cheerfulness and sentimentality are the main terms defining emotions and temperament. Cheerfulness is the main term used to define the ideal personality of the girl. Images of ideal girlness describe young girls as a bouquet of flowers which brightens the lives of family members. The undesirable personality of the girl is defined by excessive sentimentality, vanity, and jealousy. The concept of cheerfulness is inseparable from the state policy of creating a "cheerful society." Indeed, ideal girlhood can be seen as a representation of the state ideology of cheerfulness. It was typical for so-called "cheerful novels" and romance to appear in 『Yeohaksaeng』, which demonstrates the interconnectedness of discourses informing the concept of girlness. Indeed, the redefining of emotional temperament centered on the nature of girlness. In this essay, the discourse of scientism (including discourses on hormones and puberty) is analyzed for how it was deployed to naturalize the concept of girlness and proper emotional temperament. The era of the 1970s can be said to begin on December 5th, 1968 with the promulgation of the National Charter for Education. The 1970s signals the full-scale arrival of the enlightenment period and magazine articles typically emphasized the need for the discipline and management of rebellious youth. The 1970s emerged as a decade distinguishing between polluted girlness and pure girlness. An article from August 1970 titled "The Absconding of Schoolgirls" succinctly reflects the dominant discourse of the period. Articles discussing "wandering runaway teenagers," purity, and relations with the opposite sex increased dramatically during this period. In addition, considerable emphasis was placed on the category of shame as an important emotional category. Commercialized eroticism also emerged as the dominant culture in the 1970s. This period saw a rapid increase in girls

moving to Seoul and working in factories which necessitated the management and discipline of young girls. In this context, it is significant that shame became a concept central to emotional health. Indeed, the directing of shame and hatred toward specific nefarious individuals can be viewed within the larger project of forming uniform subjects of the state. Modern state-building projects sought to create uniform subjects for the purpose of guaranteeing male labor power and restoring eroded post-war male subjectivity. Moreover, the concept of girlness is also intimately related to the transformation of the productive power of the male into the “mechanical body.” It can be deduced that the discarding of the fragile, imperfect, and shameful physical body was achieved through the construction of girlness. The reorganization of gendered definitions of emotion in the 1960s and 1970s is one method for conducting an analysis of making national body under Park Chung-hee’s modernization project.

Key words: 1960s, 1970s, Park Chung-hee’s modernization project, magazine 『Yeohaksaeng』(Schoolgirl), emotion, gender

본 논문은 2019년 11월 15일에 접수되어 2019년 11월 18일부터 12월 11일까지 소정의 심사를 거쳐 2019년 12월 14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